

【논 문】

1598년 杏山 전투 분석

—萬世德과 부안의 전투를 중심으로—

남 민 구*

【 차 례 】

- I. 머리말
- II. 임진전쟁 이전 부안의 군사 활동
- III. 임진전쟁 중 부안의 군사 활동
- IV. 萬曆26년 杏山 전투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몇몇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萬世德의 杏山 전투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萬曆26년(1598) 천진순무 만세덕은 조선경리로 임명되어 파견되었다. 조선에 부임하는 길에 만세덕은 杏山驛에 머무르던 도중, ‘達子’의 공격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에 만세덕은 성벽에 올라 직접 전투를 지휘하였다. ‘달자’의 수장 ‘백언한(伯彦罕)’은 복원(北元)의 수장 부얀 세첸 카안이었다. 부얀은 투먼 자삭투 카안의 장남으로, 만력20년(1592) 투먼이 사망하면서 카안에 즉위하였다. 부얀은 즉위 이후 10만 명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요동 일대를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는 대규모의 성(城)을 공략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록으로 전해지던 만세덕의 杏山 전투는 부얀이 이끄는 복원군과의 전투였던 것이다.

주제어: 금주, 동로, 만세덕, 부얀, 복원, 우둔위, 진무보, 행산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I. 머리말

16세기 중엽, 장성 북변에서는 알탄 칸(Altan Khan, 1507-1582)의 투메드를 비롯한 몽골 우익과 명과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隆慶5년(1571) 몽골과 명 사이에 호시무역이 허용되면서 양측간 교역 규모는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소 규모의 몽골 수장들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독립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몽골의 정치적 분열도 가속화되었다.¹⁾ 그 결과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만주와 몽골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만주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몽골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점진적으로 병합해 갔다. 몽골은 만주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섰지만 결국 만주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는 단순히 만주의 군사적 승리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만리장성 일대 쟁탈에서 만주가 승리하면서, 대명 교역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만주가 장악한 것이 만주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여 요인이었다. 또한 北元の 수장 립단 카안(Ligden Qa'an, 1588 혹은 1592-1634)에 반대하는 몽골 세력이 後金の 홍타이지(皇太極, Hong Taiji, 1592-1643)와 反 립단 세력을 형성하여 몽골을 분열시킨 것도 만주가 몽골을 병합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다. 립단 카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열된 몽골을 통합하고 遼東으로 진출한 후금을 견제하기 위하여, 遼東과 장성 일대에서 군사 원정을 하였다.²⁾

기존 연구에서는 립단 카안 이후 시기 몽골의 적극적인 군사 활동에 대하여 주로 주목해 왔다.³⁾ 이렇듯 립단 카안 시대에 본격적으로 만주가 遼東에 진출하

1) 노기식, 2000, 「홍타이지의 反립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중국학논총』 13, pp.169-171.

2) 노기식, 2000, 앞의 글, pp.167-169.

3) 노기식, 1999, 「後金時期 만주와 몽고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노기식, 1999, 「後金の 遼東進出 前後 만주와 몽골의 關係逆轉」, 『중국학논총』 12, pp.93-148; 노기식, 1999, 앞의 글, pp.167-198; 노기식, 2001,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중국학논총』 14, pp.63-90; 이선애, 2018,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관계」, 『명청사연구』 49, pp.171-222; 戴鴻義, 1992, 「論林丹汗的敗亡」, 『社會科學輯刊』 82, pp.92-97; 張永江, 1992(4), 「十七世紀初東蒙古의 政治局勢與林丹汗」, 『煙台師範學院學報』, pp.60-67; 曹彥生, 1993(5), 「林丹汗聯明抗金的經濟原因」, 『內蒙古社會科學』, pp.50-55; 希都日古, 1999, 「林丹汗與廣寧之戰」,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3, pp.13-16; 希都日古, 「試論林丹汗西征的後果及其敗亡」, 『內蒙古社會科學』, 1999(2), pp.36-39;

고 몽골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립단 카안의 조부이자 전임 복원 수장이었던 부얀 서첸 카안(Buyan Sečen Qa'an 1554-1604, 재위 1592-1604)의 활동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부얀의 재위 시기는 만주와의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지만 장성 이남 遼東 일대의 군사 원정 활동이 두드러졌던 때였다. 이러한 군사 원정은 임진전쟁 시기에도 계속 이뤄졌다. 특히 朝鮮經理 萬世德(1547-1602)이 전장으로 파견되었을 도중에 부얀은 杏山과 錦州를 침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萬世德의 부임 일정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萬曆26년(1598) 萬世德과 부얀의 杏山 전투의 발생 배경과 전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杏山 전투 이전 시기 부얀의 장성 이남 군사 활동을 검토한다. 이후 萬世德 휘하 南兵守備 姜良棟의 『鎮吳錄』에 수록되어 있는 萬世德의 상주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杏山 전투의 발생 과정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⁴⁾

II. 임진전쟁 이전 부얀의 군사 활동

임진전쟁 이전 부얀의 군사 활동은 顧養謙의 『撫遼奏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투먼과 부얀 등은 40만여 기를 통솔하고 장성으로부터 6-7백리 떨어진 鹽場과 金線塔 등지에서 유목하며 해마다 대거 침범하였다.⁵⁾ 萬曆14년(1586) 9월경, ‘투먼의 아들 부얀 타이지[土蠻男卜言太主]’ 등이 6-7만명을 모아 廣寧,

楊强, 2010, 「論林丹汗의 敗亡」, 『大連民族學院學報』 12-2, pp.103-106; 聶曉靈, 2010(4), 「蒙古林丹汗與滿蒙初期政治關係」, 『滿族研究』 101, pp.23-36; 聶曉靈, 2012, 「林丹汗東征科爾沁部與後金的政治關係」, 『內蒙古社會科學』 33-2, pp.68-71; 刁書仁, 2015, 「16·17世紀之際東亞全遼地區的滿蒙關係」, 『中國邊疆史地研究』 25-4, pp.45-56; 和田清, 1959, 「察哈爾部の變遷」, 『東亞史研究』(蒙古編), 東洋文庫; 萩原淳平, 1979, 「リクダシ・カーンの生涯とその時代」, 『明代蒙古史研究』, 同朋舎.

4) 『鎮吳錄』의 발굴과 강양동의 생애 및 교섭 활동에 관하여서는 남민구, 2022, 「정유재란기 南兵守備 姜良棟의 교섭 활동: 『鎮吳錄』을 중심으로」, 『學林』 50, pp.241-290을 참조할 수 있다.

5) 顧養謙, 『撫遼奏議』 卷6 「疏」, 「全鈔圖說·虜衆·北虜驍輶部」, “土蠻·卜言台住·宰桑兀兒·把哈·土妹大委正等酋, 約四十萬餘騎, 在地名鹽場·金線塔等處遊牧, 離邊約六七百里, 歲結聚大舉入犯.”

錦州, 義州, 寧前 등지를 약탈하려 한다는 첩보가 명측에 접수되었고, 실제로 이들은 10월 1일에 烏峯塔 일대를 약탈하였다.⁶⁾ 萬曆15년(1587) 9월 중에는 ‘투먼의 아들 부안 타이지[土蠻男卜彦台主]’ 등이 捨刺母林에서 기병 10만여 기를 모아 10월 10일 혹은 15일 전후로 廣寧, 錦州, 義州를 약탈하려 하며, 특히 부안 부대는 錦州와 義州를 약탈하려 한다는 첩보가 명측에 접수되었다.⁷⁾ ‘土蠻’은 투먼 자삭투 카안(Tümen Jasaytu Qa'an, 1539-1592, 재위 1557-1592)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明實錄』에서는 ‘東虜’와 ‘西虜’로 일컬어진 복원군이 장성 일대를 침공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明實錄』 萬曆18년(1590) 4월 1일 기사에서 부안이 처음으로 『明實錄』에 등장하였다. 이날 기사에는 東虜 ‘투먼의 아들 부안 타이지[土蠻男卜言台周]’ 등이 침공하자 遼東總兵 李成梁 등이 반격하여 284명을 참획하였고, 이에 대한 宣捷禮가 이뤄졌다고 기록되어 있다.⁸⁾

이후 『明實錄』 기사에서는 ‘卜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복원군의 침공은 계속되었다. 같은해 10월 13일경, 투먼이 西虜 赤把都 등과 寧前 등을 침공하였다.⁹⁾ 萬曆19년(1591) 5월 7일에는 東虜 銀燈이 遼東과 山海를 침공하였다는

6) 顧養謙, 『撫遼奏議』 卷7 「疏」, ‘虜賊屢次大犯官軍出奇獲功’, “萬曆十四年十月十一日, 據分巡遼海東寧道兼理廣寧等處兵備山東布政使司右布政使任天祚呈, 據坐營中軍金承武報稱, 案照本年九月二十等日, 節蒙兵部軍門撫鎮咨文牌案, 節據臺頭石門等路參將王輓等, 并本鎮鎮靜等堡守備劉崇正等各稟, 據哨夜回鄉探報, 東西虜首以兒鄧·黑石炭·黃台吉·杪花·把免兒等, 并土蠻男卜言太主, 糾會聚兵, 一稱聚兵六七萬, 要搶廣寧·錦·義·寧前等處, 一稱水淺犯搶河東, 水深犯搶河西, 原殺他三箇達子地方報讐, 一稱大小頭兒二十箇, 聚兵七八萬, 隨帶攻剋臺圍鉤梯, 於十月初一日, 都到地名烏峯塔, 一二日進搶.”

7) 顧養謙, 『撫遼奏議』 卷7 「疏」, ‘虜賊入犯官軍襲擊獲功’, “萬曆十五年九月內, 節准兵部軍門咨文, 節據鎮臺頭喜峰馬蘭等路總副參遊張臣解一清等, 并永平兵備道稟, 據哨夜屬夷各探報, … 又土蠻男卜彦·黑石炭·把漢大成·一克大成·滾免·土妹·銀燈等, 各在地名捨刺母林聚兵十萬餘騎, 要在十月初十五前後, 犯搶廣寧, 并錦·義二州, 分兵二股, 一齊進搶, 土蠻男卜彦台主領兵一股犯搶錦·義, 他台兒領兵一股犯搶廣寧, 各東西地方.”; 瞿九思, 『萬曆武功錄』 卷12 「東三邊·卜言免卜言把都兒列傳」, “九月, 虜騎從石河口臺入, 漢兵追逐, 斬首五級, 奪獲馬五頭. 頃之, 把免兒偕土蠻男卜彦, 大會一克委正, 及其叔父燒海·召力免三萬餘騎, 聲欲略廣寧遼西, 以雪速把亥之怨. 其十月, 虜騎至十餘萬, 皆從黃佃子·黑松林·平山, 馳大邊新臺, 入圍鎮靖. 所計欲分犯廣寧·錦·義. … 是歲, 萬曆丁亥也.”

8)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22 萬曆18년(1590) 4월 6일 丁丑條, “丁丑, 宣遼東捷. 先是, 東虜土蠻男卜言呂[台]周等會合西虜父漢塔塔兒糾衆入犯. 總兵官李成梁等領兵, 斬首二百八十四顆. 禮部題請. 于是日, 皇上常朝之期, 行宣捷禮, 百官稱賀如例, 遣公徐文壁祭告南郊, 侯吳繼爵北郊, 駙馬許從誠太廟, 各祭告.”

9)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28 萬曆18년(1590) 10월 13일 辛巳條, “辛巳, 東虜土蠻糾西虜赤把都等, 謀犯寧前等處, 上諭兵部, 適見遼東塘報, 聲息緊急. 你部, 便馬上差人, 傳與督撫等官, 著用心防禦, 務保無虞.”

것이 보고되었으며,¹⁰⁾ 萬曆19년(1591) 10월 6일, 東虜가 薊東 침략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명 조정에 접수되었다.¹¹⁾ 萬曆21년(1593) 8월 2일, 東虜가 복수를 하기 위하여 침공하려 한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¹²⁾ 萬曆18년 이후 부안의 활동은 『明實錄』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東虜 혹은 西虜의 침공이 계속되었으며, 여기에 부안 역시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萬曆22년과 萬曆23년 명군과의 두 전투를 거치면서 부안의 명측 기록에 상세히 포착된다. 萬曆20년(1592) 투먼이 사망하고 부안이 즉위하면서 부안이 직접 지휘하는 원정이 빈번해짐에 따라 명측 기록에도 부안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III. 임진전쟁 중 부안의 군사 활동

1. 萬曆22년 右屯衛城 포위전과 鎮武堡 전투

萬曆22년(1594) 10월, 부안이 이끄는 복원군은 右屯衛城과 鎮武堡를 공격하였

-
- 10) 『明神宗顯皇帝實錄』卷236 萬曆19년(1591) 5월 7일 辛未條, “兵科給事中張應登言, 前哨三衛, 係我屬夷, 歲有撫賞, 來有流賞, 奈何由石門路惡谷而入寇, 賊夷不知爲誰, 而喜峯報稱, 東虜銀燈調長昂部落, 犯搶遼東·山海, 是朋呼類呀, 非一朝一夕, 何謀密不泄而我卒不能先得也. 惡谷, 無牆馳突, 誠易我, 豈不據險爲守, 而今賊夷五十餘騎, 丑入寅出, 攻我邊堡, 殺我哨軍, 如入無人之境, 且將領損失甚多, 何以傷官而不傷軍, 失人而不失馬也. 我之撫夷甚厚, 夷之謀我常狡, 卽如長昂一夷, 無論年來給我內帑不貲, 卽石門路, 新增賞物, 長昂已得十之二三, 屢賞屢搶, 初不以羈縻爲意者. 東·西二虜, 號稱百萬, 而以長昂介乎其間, 歲時祭祖之說, 未必非盟神會話之謀, 東構西連, 恐臨期而並舉者, 不止一惡谷也. 惡谷之失事, 宜核薊鎮之軍令, 宜飭部覆, 從之.”
- 11) 『明神宗顯皇帝實錄』卷241 萬曆19년(1591) 10월 6일 戊戌條, “兵部覆, 薊遼總督蹇達揭稱, 夷情勢已結聚, 計必窺犯薊東, 凡主將·客將, 各宜調遣應援. 宣大聞警, 卽赴懷來, 保護陵寢, 保定聞警, 徑赴通州, 防護京通. 若東虜犯薊, 其遼西寧前, 兵馬一面入援, 一面搗巢牽制, 毋得自分彼此. 得旨, 薊鎮, 爲陵京近地. 邊防軍令, 委宜倍加謹嚴. 這分布將領調度節制事宜, 著該鎮督撫亟行申飭, 仍行宣大保定督撫等官, 聞警星夜赴援, 毋逗遛觀望, 致悞軍機. 其京營總協大臣, 亦須悉心籌畫, 以圖防守.”
- 12) 『明神宗顯皇帝實錄』卷263 萬曆21년(1591) 8월 2일 癸未條, “延綏巡撫李春光題, 據偏頭關守備袁登塘報, 東虜助逆報讎, 奉欽依, 行宣大·山西督撫諸臣宣諭利害, 虜王卽遣夷使前來, 稟明心迹. 夷使言, 虜王西牧回巢, 擒獻史酋贖罪, 復開市賞之後, 感戴聖恩, 益加恭順. 雖卜酋以族屬之親, 呼賊以財物之多, 糾合西助, 俱執不從. 今虜王及忠順夫人回書, 可按也. 及各撫鎮道將, 差人詰問體訪, 并查勘袁登所報盡因. 上以東·西虜情, 務要從實偵探, 分別順逆, 毋得輕率妄傳, 及彼此推諉誤事.”

으나 董一元과 李化龍 등이 지휘하는 명군에 의하여 격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³⁾ 廣寧 남쪽에 위치한 右屯衛城은 十三山驛과 함께 邊牆이 없었지만 ‘腹裏’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기에, 당시 북원군은 이곳을 빈번히 침공하였다.¹⁴⁾ 전투가 있기 전인 萬曆22년 4월 28일, 대학사 王錫爵은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과 東虜의 발호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바, 명 조정에서도 東虜의 침공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었다.¹⁵⁾

북원군의 침공 의지는 貢市 문제로 인하여 증폭되었다. 萬曆22년 7월 중, 명측은 ‘부안 타이지[卜言台周]’의 貢市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것이 북원측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¹⁶⁾ 이즈음 ‘투먼의 아들 다용 카안[土蠻男大彥罕]’이 말을 모으고 대거 침범할 것이라는 첩보가 명측에 접수되었다.¹⁷⁾ 7월 14일, ‘동로 투먼(東虜土蠻)’의 아들 ‘부안(伯顏)’이 黑石炭, 黑石兔, 兵兔, 一捐委正, 把漢委正 등의 병력 약 8만 명을 老河에 결집시켰다.¹⁸⁾ 한편 8월 15일, 명측은 북원군이 遼東 廣寧 일대를

13) 『明史』卷239「列傳127」중 董一元(王保), “遼東自李成梁後, 代以楊紹勳, 一歲三失事. 尤繼先繼之, 半歲病去. 廷議擇帥, 乃以命一元. 泰寧速把亥爲官軍所殺, 其次子把兔兒常欲復仇. 從父炒花及姑婿花大助之, 勢益強. 西部卜言台周, 故插漢土蠻子也. 部衆十餘萬, 與把兔兒東西相倚, 數侵邊. 至是, 卜言合一克灰正·腦毛大諸部, 聲犯廣寧, 而把兔兒以炒花·花大·暖兔·伯言兒之衆營舊遼陽, 將入掠鎮武·錦·義. 一元與巡撫李化龍策曰, 卜言雖衆, 然去邊遠, 我特患把兔兒及炒花耳. 今其衆不過萬騎, 破之則西部將不戰走. 乃遣副將孫守廉馳右屯禦西部, 而親將大軍匿鎮武外, 爲空營待之. 寇騎馳入營, 大笑, 以爲怯, 乃深入. 官軍忽從中起, 奮呼陷陣, 自午至酉. 寇大奔, 逐北七十餘里, 至白沙塌. 俘斬五百四十有奇, 獲馬駝二千計. 伯言兒中矢死, 把兔兒亦傷, 餘衆終夜馳. 天明駐馬環哭. 其明日, 卜言台周入右屯, 攻五日夜. 守廉等固守, 乃引去. 時二十二年十月也. 捷聞, 帝大喜, 祭告郊廟, 宣捷行賞, 進一元左都督, 加太子太保, 廢本衛指揮使. 兵部尚書石星以下亦進秩有差.”

14) 顧養謙, 『撫遼奏議』卷6「疏」중 ‘全鎮圖說·兵窾’, “廣寧右屯備禦駐劄右屯衛本營, 實在官軍, 家丁五百四十八員名, 領右屯城井以下驛, 凡二處無邊, 在廣寧南, 稱腹裏. 而廣寧東西邊, 皆近可徑, 達虜所垂涎. 十三山驛, 原額驛軍一百一十二名, 遞運軍一百一十二名, 安插軍一百一十二名.”

15) 『明神宗顯皇帝實錄』卷272 萬曆22년(1594) 4월 28일 丙子條, “丙子, 大學士王錫爵病中上言, 目前國事, 莫急於倭虜. 倭若真心向化, 決無絕理. 若分外要求, 決無許理. 羈縻駕馭, 惟此兩端. 其他衆論勇至, 欲歲糜百萬之財而怯, 不敢通一介之使, 則非臣之所解. 至東虜跳梁, 雖起於乘虛伺隙, 其實皆因將不得人·兵不識將, 功罪倒置, 故聞草致此. 察其敝而亟反之, 可保無虞. 卽留臣經年所守, 只此數語. 上以料理素定曲當機宜, 令痊可卽出, 用紓東顧.”

16) 李化龍, 『遼東奏議存』卷3 ‘右屯退虜功罪疏(萬曆23년 2월 29일자)’, “案照本年七月內, 北虜土蠻卜言台周差夷人, 來講貢市. 時值撫鎮并分巡兵備王參議初至, 令撫夷官劉宗正, 宣諭阻絕.”

17) 李化龍, 『遼東奏議存』卷1 ‘請發寺馬疏(萬曆22년 7월 21일자)’, “聞土蠻男大彥罕部落, 亦已拏馬矣. 秋氣漸高, 胡風益勁, 大舉之期, 止在目前.”

18) 李化龍, 『遼東奏議存』卷2 ‘查欽達賊節次犯邊斬獲疏(萬曆23년 2월자)’, “節據寧前副總兵秦得倚·管

약탈하려 하였으며, 여의치 않으면 山海 이서 지방을 약탈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¹⁹⁾ 9월 중에는 ‘부안 타이지[卜彦台周]’가 挾貢(명 조정에 조공할 권한이 있는 부락의 명의를 빌려 조공 교역에 참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병력을 모아 침공을 계획하려 한다는 첩보가 명측에 접수되었다.²⁰⁾ 遼東에서 進貢하려 하였지만 裏邊에서 이를 따르려 하지 않자, ‘부안(伯彦)’은 一措委正·把漢委正·銀燈·腦毛大 등 수장 30명을 통하여 기병 10만여 기를 모아 10월 15일에 廣寧 일대를 침공한다는 것이었다.²¹⁾

10월 1일, 마침내 복원군은 廣寧 일대를 침공하였다. 長昂 등은 ‘부안 타이지(伯言太吉)’ 등 9명의 수장이 거느린 기병 4만여 명과 함께 廣寧 동서 지방을 약탈하였다.²²⁾ 10월 3일, 정탐을 통하여 명군은 黑山과 白雲山 일대에 복원군 진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²³⁾ 10월 11일 五更(새벽 3시-아침 5시), 복원군 1만여 기가 小周臺 등에서 鎮武堡를 ‘옆에 끼고[夾]’ 인근의 吳家墳을 약탈하였다.²⁴⁾ 總兵 董一

山海參將事遊擊郭夢徵稟，據關西界嶺口尖哨李成等探報，七月十四日，有東虜土蠻男伯彦，同黑石炭·黑石屯·兵屯·一措委正·把漢委正等，各傳所管達子前往地名老河，聚兵約有八萬餘騎。”

- 19) 李化龍，『遼東奏議存』卷2 ‘查敘達賊節次犯邊斬獲疏(萬曆23년 2월자)’， “八月十五日前後，犯搶遼東廣寧東西，如不得手，就搶山海迤西地方。”
- 20) 李化龍，『遼東奏議存』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九月內，屢據關西井本鎮謀報，卜彦台周，因挾貢未遂，聚兵謀犯。”
- 21) 李化龍，『遼東奏議存』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案照本年九月內，節蒙撫鎮并分巡兵備王參議急字等號牌案，准蒙兵部軍門咨案，節據山海管參將事遊擊郭夢徵等稟，據關西石門臺頭等路參遊管一方等各稟，據屬夷尖哨周奴兒等探報頭目腦毛大等說稱，要在遼東地方進貢，裏邊不肯隨，有伯彦，傳調一措委正·把漢委正·銀燈·腦毛大等大小頭兒三十箇，聚兵十萬餘騎，要在十月十五日前後，犯搶廣寧東西地方。” ‘乞歸疏’에서 李化龍은 이때의 병력을 7만여 기로 보고하였다. 李化龍，『遼東奏議存』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今有大彥罕等帶領達子七萬餘騎，要在十月十五日前後，還搶遼東廣寧東西地方。”
- 22) 李化龍，『遼東奏議存』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又長昂等帶領達子，進搶中後所，被裏邊人馬將久慣用兵好達子伯言不賴等六箇小頭兒殺死。有長昂，往虹螺山迤北住著，等候東虜伯言太吉等九箇大頭兒帶領達子四萬餘騎，要在十月初一日前後，一同犯搶廣寧東西地方。”
- 23) 李化龍，『遼東奏議存』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十月初三日，又差家丁張言等從鎮遠堡出境，哨至地名黑山，離牆五十餘里，瞭見營火，約長十五里。又往白雲山，瞭見營火五處，離牆六十餘里。”
- 24) 李化龍，『遼東奏議存』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本月十一日辰時，據曹文煥差夜不收田住升，押同守堡孫孝祖，差夜不收吳元二報稱，達賊一萬餘騎，於本日五更時分，從小周臺南空起，南中臺止，共九空，一齊進入夾本堡，往南吳家墳深搶。” 瞿九思，『萬曆武功錄』卷12 「卜言兔卜言把都兒列傳」에도 ‘10월에 虜가 小周台에서 吳家墳으로 깊게 진입하였다(十月，虜乃從小周台深入吳家

원이 이들을 저지하였다.²⁵⁾ 董一元은 遼東鎮坐營中軍 王德義 등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길을 차단하였다.²⁶⁾

다음날인 10월 12일, 명측은 ‘동로 투먼의 아들 다용 카안[東虜土蠻男大彥弼]이 一克灰正·銀燈·更根兒·兵兔·把兔·腦毛大 등 수장 9명의 기병 8만여 기를 那林에 집결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²⁷⁾ 이때 長昂은 界嶺口와 義院口를 약탈하려 하였으나 ‘다용 카안[大彥弼]’은 이 두 곳이 산세가 험하고 누대와 병력이 많아 공격하기 힘들어 10월 12-13일에 遼東 錦州와 義州를 약탈하려고 하였다.²⁸⁾ 10월 14일 申時에 趙小廝라는 인물도 ‘虜酋 부안 타이지[虜酋卜彥台周]’가 10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錦州와 義州를 약탈하려 한다고 진술하였다.²⁹⁾ 이에 董一元은 李如梅·李寧·盧得功을 錦州와 義州로 보내어 방어하게 하였고, 李寧은 袁裳綱 등을 통하여 관문과 골목을 지키게 하였다.³⁰⁾ 한편 趙小廝는 ‘부안 타이지[卜彥台周]’가 새롭게 ‘카안[弼]’을 칭하고 병력 10만여 명을 모아 大凌河口에 진영을 설치하고 右屯衛城을 공격하려 한다고 진술하였다.³¹⁾ 經略 孫鏞, 董一元, 李化龍 역시 ‘부안 타이지

墳]고 기록되어 있다.

- 25) 李化龍, 『遼東奏議存』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十月十一日, 虜賊一萬餘騎從鎮武堡入犯, 董總兵統領兵馬赴彼截剿.”
- 26) 李化龍, 『遼東奏議存』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當蒙董總兵統領本職, 并將領李平胡·張奇功·王維貞·董用威·塗寬·詹鞠養·李都·安本固, 及守備旗鼓千把總等官單盡忠·呼振·方時新·黑鎖·魯友時·梅應春·趙魁等兵馬, 馳赴腰站原挑營盤列營, 一面發撥眼探的實堵截.”
- 27) 李化龍, 『遼東奏議存』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本月十二等日, 節據管山海參將事遊擊李承祖稟, 據關西冷口通夷王本等報稱, 東虜土蠻男大彥弼帶領一克灰正·銀燈·更根兒·兵兔·把兔·腦毛大等九箇頭兒達子八萬餘騎, 往地名那林聚齊.”
- 28) 李化龍, 『遼東奏議存』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有長昂, 差達子, 會搶界嶺口·義院口, 大彥弼等商量, 界嶺·義院, 山勢陡險, 樓臺稠密, 人馬砲火又多, 不好進搶, 要在十月十二三進搶遼東錦·義二州東西地方.”
- 29) 李化龍, 『遼東奏議存』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十四日申時, 據回鄉趙小廝供說, 虜酋卜彥台周, 聚兵十萬, 近邊要搶錦·義地方, 當發李如梅·李寧·高濂·盧得功各兵馬, 回城防禦訖.”
- 30) 李化龍, 『遼東奏議存』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於十四日, 據報, 錦·義虜賊近邊, 蒙董總兵將李如梅·李寧·盧得功發回防禦, 李寧回到錦州城, 將中軍千把總袁裳綱等六員, 分堵各關門·巷口.”
- 31) 李化龍, 『遼東奏議存』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又有回鄉趙小廝, 從義州大靜堡進入, 供稱, 卜言台周, 因新稱罕, 聚兵十餘萬, 見在大凌河口下營, 誓要攻克右屯衛城.”

[卜彥台周]가 사망한 투먼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접하였다.³²⁾

10월 15일, 복원군은 右屯衛城 인근에서 진영을 설치하고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날 子時(밤 11시-오전 1시), 기병 8만여 기가 下石門臺를 따라 진입하였다.³³⁾ 寅時(오전 3시-오전 5시)에는 기병 2천여 기가 胡林臺를 따라 진입하여 남쪽을 약탈하였으며,³⁴⁾ 卯時(오전 5시-오전 7시)에는 기병 3천여 기가 姚華營臺를 따라 진입하여 남쪽을 약탈하였다.³⁵⁾ 午時(오전 11시-오후 1시), 鎮武堡 전투를 끝낸 董一元은 閭陽驛 으로부터 서쪽으로 大陵河 이남의 右屯城 일대까지 복원군 8만여 명이 주둔하여 城堡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³⁶⁾ 아침에는 大清堡備禦 盧得功이 大寧堡 등 3개 堡에서 복원군이 부대를 나눠 진공해 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⁷⁾ 같은 날, 王德義는 군영을 옮겨 적을 유인하였고, 董一元은 王德義 등과 함께 장성 아래까지 이들을 공격하여 30여 리를 추격하였고 약탈당한 물건을 되찾았다.³⁸⁾ 게다가 이들은 장성 밖으로 나가 白沙堞에서 午時(오전 11시-오후 1시)부터

- 32)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該臣會同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經略禦倭兵部左侍郎兼都察院右僉都御史孫鑣, 鎮守總兵官署都督同知董一元, 議照, 遼左三面環虜, 多如蟬毛, 乃其最大者, 有二枝, 曰土蠻, 以衆稱, 曰速把亥, 以強稱, 土蠻死矣, 其子卜彥台周嗣罕, 速把亥戮矣, 其子把兔兒, 其族炒花·花大領兵, 然卜彥台周雖多而遠, 其大舉有時.”; 翟九思, 『萬曆武功錄』 卷12 ‘東三邊·卜言免卜言把都兒列傳’, “癸巳冬, … 其明年, … 九月, 伯彥引一揆委正·把漢委正·銀燈·腦毛大等十萬餘騎, 聲欲犯廣寧, 是時, 孫鑣為置[制]置使, 李化龍為臺御史, 董一元為總戎, 皆大議以為, 土蠻久物故, 而其子卜彥台周嗣.”
- 33)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十五日, 據李如梅差夜不收王虎, 押同守大寧堡千戶奚盡·差哨夜劉四漢口報, 本日子時, 達賊約有八萬餘騎, 從下石門等臺空進入.”
- 34)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又據大清堡備禦盧得功差夜不收魯從得等口報, 本日寅時, 達賊約有二千餘騎, 從胡林空臺進入, 往南深搶.”
- 35)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又據大靜堡百戶于化龍·差哨夜王老漢口報, 本日卯時, 達賊約有三千餘騎, 從姚華營臺進入, 往南深搶.”
- 36)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本日午時, … 彼時, 董總兵, 在鎮武堡戰罷, 因探前賊, 自閭陽驛起, 西抵大凌河迤南右屯城一帶, 聯絡結營, 沿山·遍野·要路, 俱有達賊, 架梁阻塞, 實有八萬餘衆, 恐賊不行野掠, 必分攻城堡.”
- 37)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十五日早, 又據大清堡備禦盧得功報, 虜衆從大寧等三堡分投進入.”
- 38)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尤懼前賊知逸, 謀同諸將, 暫移營往東十里許, 賣路誘賊起營, … 前賊遂墮我計開營, 果從營盤迤西奔跑出境, 間, 董總兵即統本職, … 共領兵馬, 分爲三陣, 五路並進, 直斫至墻下, 追殺三十餘里, 將原虜人畜并搶駝糧石衣物, 盡行截回復.”

酉時(오후 5시-오후 7시)까지 혼전을 벌여 승리하였다.³⁹⁾

10월 16일, 복원군은 본격적으로 右屯衛城 공격에 나섰다. 이날 卯時, 복원군 1-2천기가 大陵河에서 도강하려 하였고, 李寧과 陳爲國 등이 午時부터 未時(오후 1시-오후 3시)까지 응전하여 이들의 도강을 저지하였다. 또한 복원군은 十三山驛 성으로 진격하였고 관문을 공격하였다.⁴⁰⁾ 한편, 같은 未時에 또 다른 복원군 부대는 王明屯에 이르렀다가 공격을 받고 右屯衛城으로 가서 포위전을 벌였으며, 성내 명군은 응전하였다.⁴¹⁾ 다음날인 17일 卯時, 복원군이 右屯衛城의 서문, 동문, 남문을 공격하였으나 명군은 공격을 막아내었고, 복원군은 사방에서 일제 공격을 펼쳤으나 결국 성을 함락하지 못하였다.⁴²⁾ 酉時에 복원군은 포위 공격을 풀고 후퇴하여 성으로부터 0.5리 떨어진 곳에 주둔하였다.⁴³⁾ 18일 卯時에도 복원군은 右屯衛城 사방에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명군과 공방전을 벌인 끝에 주둔한 진영으로 퇴각하였다.⁴⁴⁾ 19일, 복원군은 해자를 메우고 성벽에 구멍을 파서 성을 함락

39)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又追出境外, 地名白沙塢, 離牆四十餘里, 與賊混斫一處, 自午至酉, 射打斫殺達賊數多, … 賊遂遠去無蹤, 時因天晚力竭, 收兵回堡.”

40)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十六日卯時, 達賊一二千騎, 往奔大凌河渡河處所, 李寧與千總陳爲國等帶領兵馬, 列河迎敵, 各用鳥銃·槍砲·弓矢一齊射打, 自午至未, 賊方退, 往東北馳奔者, 家等堡圍營, 李寧慮恐達賊順掠凌河兩岸王家·新莊·戴八等屯, 仍發把總姚功帶領家丁一百, 名赴彼防守. 本日, 賊薄十三山驛城下, 攻衝關門, 連衝十數, 陣有設防.”

41)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本日未時, 賊至王明屯, 有李如梅預差親丁李得功等二十三名, 掩伏本屯風帳內, 一擁突出, 斬獲首級一顆, 得獲達馬一匹, 夷器等件. 各賊因見砲火嚴明, 野無所掠臺營, 俱奔右屯衛, 圍城下營. 當蒙李都御史, 因據報, 虜賊相近右屯下營, 說要攻城, 牌仰王德義嚴督各該將領, 相機向前, 并取便傳諭城內官軍, 各晝夜嚴謹防守, 施放槍砲, 燈火不絕, 務要內外相應, 使賊不得薄城. 彼時, 右屯衛致仕遊擊黃都, 縣丞丘宗孔, 監生程鵬等, 生員丘繼武等, 因見賊衆城孤, 各分派四面併守.”

42)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十七日卯時, 大衆達賊至城下, 披甲在前, 無甲在後, 先衝西門. 郭濟川, 與把總張大功, 管屯指揮褚完, 指揮黃汝憲, 千戶錢得功等官軍, 各用槍砲·火箭·弓矢, 齊力對面射打, 止隔一壕, 連衝七八陣, 賊見不勝, 復衝東門, 把總傅元勳等, 亦各極力拒堵鏖戰. 又衝南門, 把總趙廷璧等拒戰益力. 郭濟川·黃汝憲往來三門策應, 比各門官軍達賊互相損傷. 李都御史預差旗牌馬景栢執旗四面催督. 賊見三門不勝, 遂四面一齊攻衝, 槍砲咸殺, 聲震天地.”

43)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至酉時, 方纔稍退, 離城半里許安營. 郭濟川, 與掌印等官王永昌等, 各嚴督軍壯, 不許擅離信地.”

44)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十八日卯時, 賊又至三門·四角·四面, 蜂屯蟻聚, 聲勢益甚, 郭濟川等督率軍壯, 各照信地禦堵, 與賊射打一日, 方退.”

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명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하였다.⁴⁵⁾ 이날 복원군은 大頭 腦 阿會台吉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⁴⁶⁾ 20일, 복원군은 右屯衛城 아래에서 해자를 메우고 공격하였으나, 명군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었다.⁴⁷⁾ 21일, 복원군은 右屯衛城을 공격하였으나 명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였다.⁴⁸⁾ 이날 三更(오후 11시-오전 1시)부터 22일 새벽까지, 명군은 右屯衛城 포위를 풀기 위하여 복원군 진영을 기습하였다.⁴⁹⁾ 성 함락의 실패와 명군의 기습에 지친 복원군은 결국 22일 아침, 右屯衛城 진영을 떠나 서북쪽으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성용 무기를 버리고 들판을 불태웠다.⁵⁰⁾ 23일, 午時, 大清堡·大靜堡·大寧堡를 통해 나가려던 적을 李如梅와 李寧이 습격하였다.⁵¹⁾ 이날 1更(밤 7시-밤 9시)에 복원군은 모두 장성 밖으로 나갔고 董一元은 병력을 수습하였다.⁵²⁾

萬曆22년(1594) 11월 25일, 兵部는 總兵 董一元이 炒花의 침공을 막아내었고, 東虜가 右屯을 공격하자 巡撫 李化龍이 副總兵 孫守廉을 파견하여 공격을 막았다고 보고하였다.⁵³⁾ 이 전투에 대하여 李化龍은 ‘鎮武大捷’이라고 표현하여 보고하

-
- 45)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十九日, 右屯賊衆, 各執竿鉤杆·梯架, 駢駢直衝至牆下, 俱爲槍砲·矢石打退.”
- 46)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有賊數百騎, 至西南壕外蒿稽內, 番出達賊一死屍, 衆賊一齊下馬, 磕頭痛哭, 駢回去訖. 據降夷供說, 搶砲打死, 大頭腦阿會台吉.”
- 47)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二十日, … 是日, 賊團營復來城下, 四面大至, 填壕, 仍用鉤杆·梯架攻衝. 孫守廉, 同郭濟川·趙良俊等, 嚴督官軍·降倭, 各用槍銃·大砲, 極力射打, 死傷達賊, 俱被拖拉去訖.”
- 48)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二十一日, 賊復仍前攻衝, 俱爲敵退.”
- 49)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又蒙李都御史, 因賊尙圍城不退, … 各帶領兵馬前去合營, 候於夜間, 撓擊虜營, 解救城圍. … 本日夜三更時, 密赴賊壘, 打放槍砲, 驚亂截斫, … 約至三更, 一齊放打槍砲, 隨有右屯孫守廉·郭濟川等, 亦放槍砲起火接應, 前賊掌號吶喊, 堅營不動, 收拾駢馬, 至天明.”
- 50)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二十二日早, 賊懼我兵夜劫團營, 方離右屯, 往西北回道, 丟棄鉤杆·雲梯·挨牌無數, 堆垛幾與城齊, 虜恨野無所得, 遂大肆撓焚, 卽湖場柴葦, 俱燒燬盡絕.”
- 51)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二十三日午時, 賊頭至大清·大靜·大寧三堡原路, 出境, 尾在杵頭山進北, 李如梅·李寧各領兵襲尾, 至一更時, 到杵頭山, 撞遇掩伏精兵, 達賊突起.”
- 52)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於本日一更時分, 方纔出絕. 董總兵收兵, 各四城堡防禦.”

였다.⁵⁴⁾ 승전에 대한 포상은 萬曆23년(1595) 5월 12일, 孫鑣·李化龍·董一元·王邦俊·孫守廉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때 右屯이 ‘虜卜彥台周’의 침공으로 입은 손해가 과다하였다고 언급되었다.⁵⁵⁾ 지금까지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鎮武大捷은 鎮武堡와 右屯衛城 등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서 명군이 전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록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전투를 바라본 기록도 있었다. 萬曆38년(1610) 4월 15일자로 작성된 熊廷弼의 계첩 ‘揭爲一札沮兵關係軍機謹述當日書札以息異議事’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萬曆) 22년, 부안 타이지 카안[卜彥台周]은 右屯衛를 약탈하고자, 먼저 기병 1만 기로 高平을 약탈하였고, 吳家墳子에 진입하였으며, 董大將(董一元)의 군대를 동쪽으로 유인하여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부안은 기병 5-6만 기를 이끌고 직접 右屯衛城을 공격하였다. 다행히 6-7일만에 高平에서 승리하자 비로소 (부안은 右屯衛城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⁵⁶⁾

위의 글에 나온 高平은 鎮武堡를 지칭하는 것과 같았다. 熊廷弼은 다른 글에서 高平은 鎮武堡라고 언급하였으며,⁵⁷⁾ 顧養謙은 高平驛이 鎮武堡 소속 역참이라고 언급하였다.⁵⁸⁾ 따라서 위의 계첩 내용은 10월 11일 복원군 1만여 기가 吳家墳을

53) 『明神宗顯皇帝實錄』卷279 萬曆22년(1594) 11월 25일 己亥條, “兵部題, 總兵董一元, 當炒酋糾衆入犯, 督率諸將, 奮勇夾擊, 斬馘五百餘級, 獲駝馬千計, 無微調增餉之煩, 而奏此奇捷, 自應破格錫予. 所獲駝駝止解五百隻, 恭候欽定蓄牧. 又虜衆圍攻右屯, 勢已岌岌, 巡撫李化龍, 遣副總兵孫守廉, 率死士衝圍, 突入協守, 雖無斬獲, 而孤城得全. 相應一併給賞. 至前項斬獲功次, 陣亡官軍, 須行按臣查覈題請. 上命按御史, 一併從公覈實, 立限具奏. 駝駝留二十四, 以供內圍, 餘分撥京營各鎮駝載.”

54) 李化龍, 『遼東奏議存』卷1 ‘鎮武大捷疏(萬曆22년 10월 30일 奉聖旨)’

55) 『明神宗顯皇帝實錄』卷285 萬曆23년(1595) 5월 12일 甲申條, “兵部覆, 右屯被虜卜彥台周入犯傷殘過多. 其衝圍入援功在全城者, 當首論. 協力捍禦盡節效死者, 宜加優恤. 既經御史宋興祖勘明功罪, 相應題請, 以示勸懲. 疏入. 上詔, 孫鑣·李化龍·董一元·王邦俊, 紀錄. 孫守廉, 禦虜功第一, 准復副總兵. 朱正, 死事, 贈千戶世襲. 餘各陞賞, 提究有差.”

56) 熊廷弼, 『按遼疏稿』卷4 「七駝兵科揭帖附」, “二十二年, 卜彥台周悉欲搶右屯衛, 先以萬騎搶高平, 深入吳家墳子, 誘董大將軍東出. 而卜彥乃引五六萬騎, 直攻右屯. 六七日幸高平捷, 而始解去.”

57) 熊廷弼, 『按遼疏稿』卷4 「七駝兵科揭帖附」, “沙嶺西六十里, 爲高平, 高平者, 鎮武堡也.”

58) 顧養謙, 『撫遼奏議』卷6 「疏·全鎮圖說」중 兵寨, “鎮武堡, 實在官軍二百八十八員名, 本堡高平驛, 原額驛軍一百一十二名, 遞運軍一百一十二名, 安插軍一百一十二名.”

공격하였고 15일부터 22일까지 6-7일간 복원군 수만여 기가 右屯衛城을 포위 공격하였다가 퇴각하였다는 李化龍의 보고와 일치한다.

李化龍과 熊廷弼의 기술에서 보이는 차이는 전투의 승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李化龍의 보고에는 복원군 1만여 기는 鎮武堡를 ‘옆에 끼고[夾]’ 吳家墳을 공격하였고, 董一元과 王德義가 군영을 옮기는 방식으로 복원군을 유인하고 白沙塢에서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고 전한다. 반면, 熊廷弼은 복원군이 高平 혹은 鎮武堡 일대를 약탈하였고, 董一元 군대를 유인해 내었으며, 右屯衛城 공방전 6-7일 동안 복원군은 高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李化龍과 熊廷弼의 진술을 종합하면, 董一元이 王德義와 함께 장성으로 군대를 끌고 간 사이에 右屯衛城에서 공성전이 발생하였으나 복원군은 함락에 실패하였고, 高平 혹은 鎮武堡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으며, 전체적인 전황으로 보면 명군은 복원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현재로서는 李化龍과 熊廷弼 가운데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李化龍의 보고에는 董一元이 15일 午時에 鎮武堡에서 전투를 끝냈다고 표현한 것 외에 鎮武堡에서 이렇다할 승전 보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鎮武大捷’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이다. 만약 熊廷弼의 의견이 맞다면, 부안에게 기만당하여 병력을 동쪽으로 이동한 董一元의 실책과 高平 혹은 鎮武堡에서의 패전을 감추고자 李化龍은 ‘鎮武大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이후 명 조정에서 그대로 수용되어 이날의 전투를 東虜의 ‘高平의 패전[高平之敗]’ 혹은 ‘高平의 치욕[高平之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右屯衛城 공성전이 발생한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서는 孫鑛·董一元·李化龍의 언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전에는 복원군이 遼東의 들판을 약탈하고 돌아가거나 臺나 堡 정도만 포위하는 수준의 전투를 벌였지만, 이후에는 성에서 노획할 수 있는 사람과 가축 및 재화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원군이 右屯衛城을 함락시키려 시도하였다.⁵⁹⁾ 이것

59)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乞歸疏(萬曆22년 12월 11일 奉聖旨)’, “該臣會同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經略禦倭兵部左侍郎兼都察院右僉都御史孫鑛, 鎮守總兵官署都督同知董一元, 議照, 遼左邊長

이 실제로 부안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명군은 이전에는 부안이 10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성을 함락시키려는 시도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로 부안은 명의 성을 함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2. 萬曆23년 黑山 전투

다음 해인 萬曆23년(1595) 정월, 복원군은 다시 遼東과 瀋陽 일대를 침공하였으며, 董一元 등은 黑山에서 복원군을 대파하였다.⁶⁰⁾ 이 전투가 발생한 배경에도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다. 萬曆22년(1594) 11월 2일, 명측은 22년 7월 중에 부안의 貢市 요청을 거절한 후, 부안이 萬曆23년 정월에 河東이나 河西 지역을 약탈하려 한다는 첩보를 획득하였다.⁶¹⁾ 또한 이때의 복원군의 공격은 이전 해의 패전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같은해 12월, 복원군이 萬曆22년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錦州·義州·廣寧을 약탈할 것이라는 첩보가 명측에 입수되었다.⁶²⁾ 구체적으로 速把亥의 아들 把兔兒가 鎮武堡를 공격할 당시 다수의 병력을 잃은 것, 右屯衛城 공격에서 一克委正의 아들 撈秤黃台周가 전사한 것, 鎮

兵寡，無歲不被虜患。然前此不過分蒙野掠，飽則歸耳。即有攻圍，亦不過臺圈邊堡之類，未有垂涎大城，致死苦攻，以必克爲主。如今日者也，蓋緣卜彥台周，正月內糾衆入犯，攻破王總兵新莊山城，所得人畜·資財甚多已。中其欲彼時窺見右屯衛城，壞易克遂，不復散搶，直走城下，一味苦攻，以爲右屯一破，則八萬之賊，皆富矣。此其爲計甚狡。據回鄉供稱，虜酋發誓神前，不克右屯，必不旋踵，以故張帷城隅，親爲指揮，百道俱進。此其爲氣甚銳。”

60) 『明史』卷239「列傳127」중 董一元(王保), “伯言兒最標悍, 諸部倚以爲強. 嘗誘殺慶雲守備王鳳翔, 坐革歲賞. 至是被讎諸部爲奪氣, 其部下遂納款. 把兔兒·炒花, 及卜言台周·瓜兔兒·歹青復臨邊駐牧, 期以明年正月略遼·瀋東西. 一元慮歲晏不備, 爲寇所乘, 乃先西巡以遏其鋒. 化龍亦留弱卒廣寧, 數西發以疑寇. 一元提健卒, 踏冰渡河, 監軍楊錫與之俱度墨山, 天大雪, 將士氣益奮. 行四百里, 三日夜乃抵其巢. 斬首百二十級, 獲牛馬甲仗無算, 全師而還. 把兔兒以鎮武創重, 歎曰, 我竟不獲報父仇乎. 未幾死, 其衆散亂, 諸部悉遠遁. 一元以功進世廕二秩. 久之, 以病歸, 命王保代.”

61) 李化龍, 『遼東奏議存』卷3 ‘右屯退虜功罪疏(萬曆23년 2월 29일자)’, “案照本年七月內, 北虜土蠻男卜言台周差夷人, 來講貢市. 時值無鎮并分巡兵備王參議初至, 令撫夷官劉宗正, 宣諭阻絕. 當蒙巡撫李都御史, 令旗鼓官張承祖到市, 擇夷人中曾係漢人可與深言者, 啗以酒食, 探虜向往, 據本官回報, 問得一夷言, 虜今年若搶河東, 必犯蓋州, 若搶河西, 今年正月.”

62) 李化龍, 『遼東奏議存』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虜自去歲闖邊, 遼左將士頗收戰守之功, 既慙且忿, 何日不思報復. 先是十二月中, 屢得關西報, 皆言, 大虜結聚, 謀犯錦·義·廣寧, 冀復前讎.”

武堡 전투에서 伯言兒가 전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복원군이 遼東과 瀋陽 일대를 약탈하겠다는 것이었다.⁶³⁾ 게다가 把兔兒에게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것도 있었다.⁶⁴⁾

명측은 복원군의 침공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다. 일례로 萬曆23년(1595) 정월 9일, 巡關御史 張允昇은 條陳邊防九事라는 제목의 상주문에서 土蠻과 長昂 등의 침공을 대비하여 山海關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⁵⁾ 현장에서도 복원군의 침략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董一元과 李化龍은 정월 초하루의 방비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서 복원군이 침범할 것을 우려하여 萬曆22년 12월 27일 西巡을 떠났고, 萬曆23년 정월 10일에는 복원군이 철수했다는 첩보를 접하고 귀환하였다.⁶⁶⁾ 13일, 孫鏞은 董一元에게 서쪽에 일부 군사를 남겨두어 복원군을 속이고 동쪽을 급습할 것을 지시하였고, 董一元과 李化龍 등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원군이 拴道에 진을 쳤다는 첩보를 접하였다.⁶⁷⁾ 22일, 이들은 十方寺堡에

63)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節據桃林口·馬蘭路尖哨并本鎮降夷各探報, 東邊頭目速把亥男把兔兒帶領達子, 進搶鎮武堡, 被裏邊人馬殺了許多, 奪去駝馬無數, 又土蠻男卜言台周等, 帶領達子進搶右屯衛, 亦被人馬將一克委正男撻柃黃台周殺了. 有把兔兒·卜言台周·得革力台吉·打刺漢·小歹青·銀燈·一克大成·把漢大成委正等衆頭兒會合, 聚兵二萬三萬, 要在正月裏, 犯搶廣寧東西, 并寧前·錦·義地方報讐. … 續據開原管參將事遊擊裴邦翰稟, 據慶雲堡新安關討責夷人花大等密說, 有伯言兒, 前邊進搶鎮武堡, 中箭回營身死. 有爪兒兔·把兔兒歹青·父哈兒等二十箇頭兒合兵, 要在正月裏報讐, 犯搶遼·瀋東西地方.”

64) 把兔兒는 萬曆23년 전투 가운데 鎮武堡에서 중상을 입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못했다’고 탄식하며 사망하였다. (『明史』 卷239 「列傳127」 中 董一元(王保), “把兔兒以鎮武創重, 歎曰, 我竟不獲報父仇乎. 未幾死.”) 把兔兒 아버지 速把亥는 李平胡와의 전투 중에 사망하였다.

65)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81 萬曆23년(1595) 정월 9일 壬午條, “兵部議覆巡關御史張允昇條陳邊防九事. 一, 守重關. 山海, 係薊遼要地, 土蠻·長昂等, 日圖狂逞, 宜選調腹裏精銳[銳]兵馬, 令將統赴山海, 隄備應援. … 奏入, 詔, 從之.”

66)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鎮臣董一元, 因與臣化龍議, 虜以新正在邇, 計吾宴賞之後, 必且飲酒作樂, 不爲警備, 伺隙而動, 理亦有之. 莫若於年內即發兵巡邊. 彼見兵出, 何敢復入. 臣化龍以節臨獻歲, 頗難其行, 而鎮臣曰, 兵不出, 虜必不解. 因以月之二十四日, 舉行欽宴. 二十七日, 發兵西巡. 比至正月初十, 後果報虜散矣, 乃始整旅以歸.”

67)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隨該督撫備行董總兵, 統領正兵并巡撫標兵, 副參遊備李平胡·方時春·張奇功·王維貞·塗寬·劉仲文·唐伯美·李茂春·董用威·安本固·劉維藩·郎國忠·呼振·高濂, 并本職, 及旗鼓千把總張承祖·畢盡忠等兵馬, 於二十三年正月十三日東行. … 而督臣則移牒鎮臣曰, 虜知吾師之西, 而不虞吾之驟東也. 若留一旅於西, 以爲疑兵, 而提大兵, 疾馳河東, 直走其巢, 掩襲之, 宜必得志. 且河東, 故炒花·燉兔·伯言等巢也. 伯言敗死, 虜衆惶惶亂, 而取之蔑, 不濟矣. 鎮臣又與臣化龍言, 此勝算也. 得時無怠, 吾席豈暇煖乎. 因留其弱兵於廣寧, 臣化龍爲

도착하였고, 23일에는 黑山에 도착하였다.⁶⁸⁾ 24일, 큰눈이 내리는 가운데 董一元이 이끄는 명군은 계속 진격하였다.⁶⁹⁾ 25일 卯時, 명군은 拴道에서 북원군을 만나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고, 黑山으로 귀환하였다.⁷⁰⁾ 26일 戌時, 명군은 장성 안으로 들어왔다.⁷¹⁾ 李化龍은 ‘黑山에서 적의 소굴을 공격하고 승리하였다[黑山搗巢獲捷]’라고 조정에 보고하였다.⁷²⁾ 28일, 孫鑣은 東虜 炒花 등의 廣寧 및 大清堡 침공에서 공을 세운 董一元 등을 포상해야 한다고 주청하였고, 황제는 이를 재가하였다.⁷³⁾ 2월 4일, 禮部는 東虜 炒花의 鎮武堡 침공에 맞서 명군은 수급 400과와 낙타 및 말 2천여 마리를 노획하는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제사를 지낼 것을 주청하였다.⁷⁴⁾

명측에서는 萬曆22년 ‘鎮武大捷’과 萬曆23년 ‘黑山大捷’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皇明經世文編』에 수록된 李化龍의 상주문 ‘鎮武大捷疏’ 중 ‘鎮武之勝’이라는 대목에 대한 添注를 살펴보면, ‘이후에 靖遠, 高平, 黑山の 승리가 있었다[嗣後又有靖遠·高平·黑山之勝]’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萬曆22년과 萬曆23년의 전투가 일련의 과정

之數數西發以疑虜。而以十三日，身自提健旅，踏冰渡河而東，當是時，虜去已遠，數偵不得，最後乃偵得，其巢在拴道，離牆四百里遠矣。”

- 68)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當蒙董總兵·楊參議親統各營兵馬，於二十二日巳時，至十方寺堡，董總兵選汰各營人馬，弱者三千餘，留駐邊牆割營，遙爲聲勢，即時鼓衆，從本堡龍灣等臺空，出邊，九哨竝進，且哨且行。至二十三日晚，抵黑山，陰霧徹夜。”
- 69)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二十四日，風雪大作，…晝夜冒雪而前。”
- 70)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二十五日卯時，至地名拴道，離牆四百餘里，天忽晴，朗前哨，各官兵遇賊，直前撲殺，賊見我兵勢衆，四散逃走，各營共止，…仍欲深入大剿，但日久路遙，恐有疎虞。於巳時，收兵晝夜回至黑山安營。”
- 71)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二十六日戌時，仍從原路進境，隨令各回城堡防禦訖。”
- 72)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2 ‘黑山搗巢獲捷疏(萬曆23년 2월 25일 奉聖旨)’
- 73)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81 萬曆23년(1595) 정월 28일 辛丑條, “總督孫鑣題，東虜炒花等酋住牧，臨邊零掠，大舉攻臺，殺人頗橫。近撫鎮出城，交代乘虛，直犯廣寧。及聞鎮臣還，又西犯大清堡。各官奮勇拒剿，則有鎮守總兵董一元，先聲礮遊，遊兵左營參將方時春，防守効力。鎮武堡都司曹文煥，應援不爽，坐使孤城保全，均有微勞。而有罪官員，宜轉行御史覈勘，分別究治。上從之。”
- 74)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82 萬曆23년(1595) 2월 4일 丁未條, “禮部題，東虜炒花糾衆，犯鎮武堡。時督撫·鎮道，同心運籌，士卒用命，斬賊級四百有餘，奪獲駝馬二千以上，脣竒奇捷，相應薦告于郊廟，宣示中外，奉旨選吉日，行南郊，遣公徐文壁北郊，侯吳繼爵太廟，駙馬萬煒，各行禮。”

으로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⁷⁵⁾ 또한, 趙南星이 작성한 李化龍의 묘지명에는 李化龍이 右僉都御史 遼東巡撫가 되었던 萬曆22년 겨울, 鎮武堡에서의 패배로 東虜가 자주 변방을 침공하자 李化龍이 靖遠과 高平에서 東虜를 대파한 후 장성 밖으로 나가 ‘什方寺堡’에서 대패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⁶⁾ 이를 통해 李化龍이 말한 黑山大捷은 黑山과 什方寺堡(十方寺堡)에서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⁷⁷⁾ 아울러 李化龍은 다른 상주문에서 鎮武堡 전투와 黑山 전투는 북원군에게 ‘高平의 치욕(高平之辱)’과 ‘拴道の 사건(拴道之擧)’이라고 병칭하였다.⁷⁸⁾ ‘高平의 치욕’은 萬曆22년 鎮武堡·右屯衛城 전투를, ‘拴道の 사건’은 萬曆23년 정월 25일 拴道·黑山·什方寺堡 일대에서 발생한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결국 명측에서는 부안이 경제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잇달아 군대를 일으켜 변방을 침공하였으나, 이 두 ‘대첩’을 통하여 명군은 북원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인식하였다.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북원군의 침공에 대하여, 명측은 이전의 전투와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후에 발생하는 북원군의 침공을 ‘高平의 치욕’을 갚기 위한 전투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75) 陳子龍 輯, 『皇明經世文編』 卷422 「李襄毅公撫遼奏稿·疏」 중 ‘鎮武大捷疏(勝東虜)’, “則所謂東虜既破, 西虜當不戰走也。以東之戰, 爲西之守。戰既勝, 守遂堅坐, 令東虜無家, 西虜無利, 乃知鎮武之勝(嗣後又有靖遠·高平·黑山之勝)。蓋全勝也。此豈臣等之力所能及哉。”

76) 趙南星, 『趙忠毅集』 卷11 「文集」 중 ‘明少傅兼太子太傅兵部尚書李公碑’, “而會遼東巡撫缺, 遼東於諸邊稱廢壞, 難其人。大司徒趙公世卿, 山東人也。曰, 李公督學時, 兼攝數道事, 至立剖如簪之泛輕塵, 此何所不可遂以公往。是冬, 虜東西合, 謀入犯。公笑曰, 西虜衆數萬, 其刺不可犯。東虜僅萬餘耳, 易與。乃檄大帥董一元, 伏兵鎮武堡, 空其營, 賊入, 我師橫擊之。斬虜首四百餘級, 虜迸去。明日, 西虜至攻右屯, 我師乘新勝氣銳, 夜劫, 賊覺而引去。以功晉兵部右侍郎, 蔭一子錦衣衛正千戶世襲。已而, 東虜以鎮武之忿, 數入犯。公以精兵, 敗之于靖遠, 又敗之高平, 又檄大將出塞搗巢, 大敗之于什方寺堡。” 같은 내용은 傳維麟, 『明書』 卷135 「名臣傳20」 중 李化龍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77)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90 萬曆23년(1595) 10월 20일 己未條에서는 什方寺堡 승전에 대한 定遼中衛指揮僉事 白潢 등에 대한 포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78) 李化龍, 『遼東奏議存』 卷3 「議義州木市疏(萬曆23년 10월 2일 奉聖旨)’, “歹青亦心怍怍怔怔, 然進則虞有高平之辱, 居恐復有拴道之擧.”

3. 萬曆23년-萬曆25년 부안의 군사 활동

두 전투 이후에도 복원군의 침공은 계속되었다. 『明實錄』 萬曆23년 9월 1일 기사에 의하면, 명 조정은 ‘土蠻’이 병력을 모아 변방으로 접근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다.⁷⁹⁾ 그런데 이때 복원군을 이끄는 수장은 투먼이 아니라 부안이었다. 이 시기 복원의 역사를 기록한 『黃史』에 의하면, 임진년 즉 萬曆20년(1592) 투먼이 사망하였으며, 장남 부안은 계사년 즉 萬曆21년(1593) 39세에 카안에 즉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⁸⁰⁾ 따라서 위의 9월 1일 기사에 등장하는 ‘土蠻’은 실제로 투먼이 아니었던 것이다. 명 조정은 투먼이 사망하고 부안이 즉위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9월 1일로부터 19일 후인 萬曆23년 9월 20일 기사에는 ‘昂酋(長昂)가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伯彥이 서쪽을 노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복원의 수장이 부안으로 명시되어 있다.⁸¹⁾ 앞서 살펴본 같은해 정월 9일 기사에 인용된 張允昇의 ‘條陳邊防九事’에 土蠻과 長昂이 병칭된 것과 비교해 보면, 9월 20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서야 伯彥이 土蠻을 대신하여 수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측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기사 이후로 『明實錄』에서는 부안을 ‘卜彥台周’ 혹은 ‘卜言台周’이 아닌 ‘伯彥’이라고 칭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이듬해인 萬曆24년(1596) 정월 6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兵科署科事刑科左給事中 徐成楚가 題本을 작성하였다. “遼東巡撫 李化龍의 보고에 의하면, 東虜 伯彥罕 등과 西夷 以兒鄧 등이 (萬曆24년) 정월을 기하여 河東을 범하기로 하였습니다. 東虜와 西夷는 진군로가 달랐으나, 이들이 교역하거나 약탈하였다는 것에 관한 보고는 분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東虜는 高平의 패전

79)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89 萬曆23년(1595) 9월 1일 庚午條, “申飭薊鎮督撫等官, 協力防禦以報, 東虜土蠻糾衆近邊故也.”

80) 格日樂 譯注, 『黃史』, 呼和浩特: 內蒙古教育出版社, 2007, p.85.

81)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89 萬曆23년(1595) 9월 20일 己丑條, “始兵部以倭封就緒, 議撤沿海水陸官兵, 檄薊鎮, 將永平防海南兵照天津議撤. 督撫報, 薊門, 與天津衝綏不同, 昂酋內調, 伯彥西窺, 無日無警. 況各兵棄業從戎, 歸無所依, 一概撤回健士, 可惜. 部據以覆除願歸農者, 厚給資餉, 令歸. 願充兵者, 查臺操見缺填補. 未盡補者, 責成新任遊擊李皆春, 加意操練, 陸續挨補. 從之.”

을 거울로 삼아 와신상담하고 분개하면서 遼東을 토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이러한 계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상흔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도와줄 세력이 미약하여, 관문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며 인질을 바치고 동맹을 맺어 교역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과를 뉘우치고 자책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왕정을 옹고고 귀순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극도로 분노하고 있지만 웃음으로 본심을 감추고 겉으로는 우리에게 귀순하면서 속으로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⁸²⁾

이 글에서 李化龍의 보고를 받은 徐成楚는 부안을 東虜의 ‘伯彥罕’이라고 밝힘으로써 부안이 카안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徐成楚는 부안과 ‘西夷以兒鄧’ 즉 바안다라(巴顏達爾, ?-?)가 河東과 遼東을 침공하기로 한 것은 東虜가 ‘高平의 패전[高平之敗]’을 만회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萬曆22년 ‘鎮武大捷’과 萬曆23년 ‘黑山大捷’에서 연달아 패전한 부안이 ‘伯彥罕’이라는 것을 명측이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북원의 공격은 계속되었다는 것은 『明實錄』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다만 이것이 부안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萬曆24년(1596) 8월 3일, 東虜 小歹青이 廣平 침범하였고 명군은 이들을 격퇴하였다.⁸³⁾ 같은해 9월 5일, 東虜頭目 超立兔 등은 3만여 기의 병력으로 廣寧을 공격하였다.⁸⁴⁾ 이듬

82) 『明神宗顯皇帝實錄』 卷293 萬曆24년(1596) 정월 6일 癸酉條, “兵科署科事刑科左給事中徐成楚題, 據遼東巡撫李化龍報, 東虜伯彥罕等, 西夷以兒鄧等, 期于正月, 犯河東. 東·西雖各異路, 而市搶之報紛然. 臣竊照, 東虜懲高平之敗, 薪膽憤鬱, 必欲甘心遼左, 計非朝夕矣. 祇以瘡痍未起, 羽翼尙孤, 扣關納質, 挿盟求市, 豈心實悔禍而不難引咎, 若徒庭款塞者比哉. 毋亦裂眦之怒, 藏於嬉笑, 陽款我而陰伺之隙, 以需時也.”

83) 『明神宗顯皇帝實錄』 卷300 萬曆24년(1596) 8월 3일 戊戌條, “原任兗州府通判華光大奏, 父華富, 製有神異火器, 職方試驗堪用. 比報東虜小歹青入寇廣平, 以火器攻虜, 虜輒扶傷奔北. 既而督撫傳檄搗巢, 委督放火器, 得獲大捷. 至水戰, 大船不必挽槳, 止用二人, 潛以盤水車飛輪, 攪之一船, 可燒敵船百艘, 欲爲天津·通州·海口備禦計. 章下兵部.”

84) 『明神宗顯皇帝實錄』 卷302 萬曆24년(1596) 9월 5일 戊戌條, “兵科署科事刑科左給事中徐成楚奏, 東夷抄花·卜言顧·花大等, 會合五路, 并西夷頭目以兒鄧等, 于蛤亥額力素聚兵, 要從廣寧鎮靜堡等處入犯. 東虜超立兔等大小頭目, 共聚精兵二萬餘騎, 東虜黃達子·哈喇哈·銀燈領一萬餘騎, 俱要犯搶廣寧. 昔高平之役, 大將首鼠觀望, 賴撫臣嚴行振剿, 方始交鋒, 遂成奇捷. 今除縱寇各官, 通候虜退之日, 斟酌功罪議處, 乞勅兵部, 移文遼進, 剋期驅剿, 據實奏聞. 章下兵部.”

해인 萬曆25년(1597) 3월 8일, 巡按直隸監察御史 蔣汝瑚는 遼東과 薊鎮의 병력이 조선으로 가면서 遼東의 병력이 약화되고 은광 개발로 인하여 복원의 침략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⁸⁵⁾

한편, 萬曆25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東酋와 西酋가 10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塞外에서 靜遠堡까지 수백 리에 이르는 지역을 공격하기도 하였던 바, 이는 부안의 공격 시도로 보인다.⁸⁶⁾ 遼陽監軍御史 陳効는 抄花兒가 ‘土蠻罕部落’ 병력 10만여 명을 규합하여 침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⁸⁷⁾ ‘土蠻罕部落’은 투먼이 거느린 부락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부안이 통치하는 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明實錄』에는 투먼 사후에도 ‘土蠻部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⁸⁸⁾ 이를 통하여 명측은 투먼의 사망과 부안의 계승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만여 명이라는 수치에 대하여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원군이 침공할 때마다 으레 등장하는 10만명이라는 수치가 실제 복원군의 규모에 부합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살펴본 기록들을 통해 명측에서는 부안이 통솔한 병력을 10

85) 『明神宗顯皇帝實錄』卷308 萬曆25년(1597) 3월 8일 戊戌條, “巡按直隸監察御史蔣汝瑚, 因遼帥失利, 言, 救朝鮮之兵, 大都取之遼·薊。平日用以備虜者, 我之銳卒既東, 虜必將窺伺乘虛入犯, 奈何又從而挑之。況永平·馬蘭路等處, 紛紛開採, 招虜啓釁, 尤爲可虞, 請行督撫諸臣, 將近邊各兵速爲募補, 東征完日, 原調各兵, 係臺者仍補臺, 係營者仍發營, 并停近邊開採, 無生虜心。上是其言, 下部議覆, 允行。”

86) 『明神宗顯皇帝實錄』卷317 萬曆25년(1597) 12월 21일 정축조, “吏科左給事中楊廷蘭奏, 遼左殘破已極, 河道淤塞足虞, 乞嚴失事之顯罰, 責治河之長策。臣惟今天下, 惟虜與河之爲患也。遼東自振武之捷, 卜彥把厄·抄花諸酋, 何嘗一日忘報復哉。邇來, 驍卒健馬, 半在抽調, 虜之欲乘虛入犯也, 惟此時。頃東·西二虜糾衆十萬, 自塞外以至靜遠堡深入, 蓋數百里, 自初七以至十四搶掠, 業將旬日, 無處不犯, 無處不破, 蕩搖我邊疆, 斬刈我人民, 殍殍我士女。若非按臣執法查核, 巡撫張思忠竟不以實報, 損國威而欺君父, 罪滋大矣。所當亟行罷斥者也。”

87) 『明神宗顯皇帝實錄』卷317 萬曆25년(1597) 12월 18일 甲戌條, “遼陽監軍御史陳効奏, 達賊抄花兒糾謀土蠻罕部落, 衆踰十萬, 結營百餘里, 搶殺人畜, 動以萬計。而楊昶·白清兩民寨, 被禍尤慘。參藩陽遊擊陳志·吳希漢, 革任回衛。”

88) 『明神宗顯皇帝實錄』卷319 萬曆26년(1598) 2월 15일 庚午條, “庚午, 兵部題, 遼左錦州邊外降夷哈刺興·散哈什等, 携其妻孥, 驅其畜產, 人以六百餘, 畜以千計, 叩關哀附, 似無他謀。但據各夷吐稱, 係土蠻部落, 及譚審漢婦。又云, 朵顏屬夷。爲詞互異, 而又久無追。捕此。撫臣所以有八不便之議也。科臣謂, 其率衆歸命, 無足深疑, 或欲峻夷夏之防, 或欲擴覆載之度, 要在制馭有力已耳。宜檄遼鎮督撫衙門, 責令道將差能幹通事官, 詳加譯審, 果別無詐偽, 的係土蠻部落, 酌量收留, 分投安置, 以廣招徠。此正局也。若詞語支離, 別有異情, 即明白阻回, 勿令入邊, 致生他變。事在彼中務令操縱, 在我無拂其效順之心, 亦無墮其詭詐之術, 務求勝計, 以奠疆圉而已。從之”

만 명 규모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⁹⁾ 이는 부안이 투먼의 통치권과 군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명측이 인지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명측은 투먼 사후 10만명 규모의 복원군의 침공은 부안이 주도한 일련의 군사 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부안과 萬世德 사이에 발생한 杏山 전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IV. 萬曆26년 杏山 전투

1. 전투 경과

萬曆26년(1598)에 발생한 복원군의 공격은 조선으로 향하던 萬世德 군대와 벌어졌다. 이해 6월 23일, 萬世德은 朝鮮經理로 임명되었다.⁹⁰⁾ 조선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山海關을 나오기 수일 전, 萬世德은 ‘大虜 10만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⁹¹⁾ 前屯衛에 이르자 복원군은 경내로 침범하였고 萬世德과 7일 동안 대치하였다.⁹²⁾ 이후 몽골군은 北山으로, 萬世德은 南岸을 따라갔다.⁹³⁾

9월 20일 전후, ‘東西夷酋 伯彥罕 등’이 ‘達子’ 10만여 기를 모으고 廣寧·錦州·義州·寧前 동서 지방을 약탈하였다는 보고가 萬世德에게 접수되었다.⁹⁴⁾ 이로써

89) 『明史』卷239 「列傳127」 중 董一元(王保), “西部卜言台周, 故插漢土蠻子也, 部衆十餘萬, 與把兔兒東西相倚, 數侵邊.”

90) 『明神宗顯皇帝實錄』卷323, 萬曆26년(1598) 6월 23일 丙子條, “丙子, 詔, 更萬世德經略朝鮮, 汪應蛟巡撫天津, 以監軍陳效, 專駐朝鮮, 紀察功罪, 另差御史一員, 巡按遼東.” 6월 15일, 萬世德은 원래 天津等處海防巡撫로 임명되었고 汪應蛟가 조선경리로 임명되었으나, 23일 이 둘의 보직이 변경되었다.(남민구, 2022, 「정유재란기 南兵守備 姜良棟의 교섭 활동: 『鎮吳錄』을 중심으로」, 『學林』 50, pp.260-262)

91)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方臣之出關也, 數日前以報大虜十萬, 聚結東行矣.”

92)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及抵前屯, 虜遂入犯, 臣與相持者七日.”

93)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是後, 虜行北山, 臣行南岸, 烽火矚目, 弓刀在腰.”

萬世德이 이끄는 명군을 공격한 것은 부안 등이 이끄는 복원군 병력 10만여 명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안의 병력 10만여 명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萬曆25년 東·西酋 연합 병력 10만여 명과도 같은 맥락에서 ‘東西夷酋’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군은 복원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9월 30일, 長嶺山守堡 周有功은 복원군 20여 기가 변장에 올라 길을 살펴보는 것을 목격하였고 전투를 준비하였다.⁹⁵⁾ 같은날, 管錦州遊擊事遼東都司僉書 馬九臯는 병마를 거느리고 杏山 서쪽에 이르러 萬世德을 영접하였고, 萬世德은 杏山驛⁹⁶⁾에서 숙박하였다.⁹⁷⁾ 한편 大鎮守堡(혹은 守大鎮堡) 盧具瞻이 변의 군영에 불이 잇달아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馬九臯는 각 城堡에 부대를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⁹⁸⁾ 萬世德이 杏山에 도착하였을 때, 복원군은 이미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關廂(성문 밖 가옥)을 약탈하고자 사면에서 성을 포위하였다.⁹⁹⁾ 이에 따라 萬世德은 南兵으로 關門을 수비하는 한편 직접 성에 올라 지휘하기 시작하였다.¹⁰⁰⁾

10월 1일, 복원군은 명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子時(밤 11시-새벽 1시),

94)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又據管錦州遊擊事遼東都司僉書馬九臯塘報, 爲大虜入犯官軍奮勇拒堵事, … 又據山海叅將稟報, 東西夷酋伯彥罕等共聚達子十萬餘騎, 要在九月二十前後, 犯搶廣寧·錦·義·寧前東西地方.”

95)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本年九月三十日, 據長嶺山守堡周有功稟報, 有達賊二十餘騎上牆看路, 職一面差人稟報本道, 一面整兵擐甲待戰.”

96) 杏山驛은 錦州성에서 서남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金毓黻, 『錦州府志』, 권4 「建置志2」 중 驛鋪·明)

97)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九月三十日, 職帶兵馬, 至杏山西界, 迎接本院宿歇本驛.”

98)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當據大鎮守堡盧具瞻報稱, 邊外營火, 聯絡不絕, 職預撥千總趙啓祉·錢應時等分撥各城堡貼守外.”

99)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方抵杏山, 前後俱虜, 而錦州東下者, 則大舉之衆也. 時秋禾已成, 收斂未畢, 虜野無所獲, 志在關廂, 洵洵人情, 以臣到而稍定, 然大虜四面圍遶, 終屬可虞.”

100)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臣以南兵守其關門, 健丁躡其要路, 臣登城四顧, 隨勢指揮.” 관문을 지키고 길목을 차단한 일은 9월 30일, 錦州성에 올라 지휘한 일은 10월 1일인 듯하다.

馬九臯는 大福堡 서쪽 연변에 포화가 끊이질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¹⁰¹⁾ 寅時(새벽 3-5시), 馬九臯는 盧具瞻으로부터 복원군이 鎮靜臺·鎮南臺·駝兒山 포대를 따라 내려와 해자를 메우고 진입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¹⁰²⁾ 같은 시간인 五更(새벽 3-5시), 복원군 1만여 기가 大福堡에서 경내로 진입하였다.¹⁰³⁾ 卯時(새벽 5-7시), 馬九臯와 杏山備禦 宋國賓 등은 복원군 1만여 기가 大福堡에서 경내로 진입하였다고 參將 俞尙德에게 보고하였다.¹⁰⁴⁾ 萬世德은 여러 지휘관에게 병력을 분배하고 대적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⁵⁾ 한편, 복원군 1천여 기는 塔兒山으로 진입한 후 中左所로 가서 약탈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¹⁰⁶⁾ 그러나 中左所遊擊 李澤이 이들에 맞섰고 복원군은 퇴각하였다.¹⁰⁷⁾ 또한 馬九臯는 복원군 4만여 기가 大鎮堡를 따라 경내로 들어와 錦州 동남쪽 小凌河·松山·杏山 일대를 약탈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¹⁰⁸⁾

첩보를 접한 萬世德은 전투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萬世德 진영에 참전하였던 徐希震은 ‘군대가 출정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용맹함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왜를 평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萬世德에게 전투에 나설 것을 권고하였다.¹⁰⁹⁾

-
- 101)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至十月初一日子時, 據備禦宋國賓差夜役孫伯駟, 押同大福堡張得榮夜役宋尙全稟報, 堡西沿邊, 砲火不絕.”
- 102)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寅時分, 又據守大鎮堡盧具瞻差夜役周松稟報, 大虜從鎮靜臺·鎮南臺·駝兒山三空, 平壕進入.”
- 103)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達賊一萬餘騎, 從大福堡進入境內, 搶掠人畜. … 又據統領南兵守備姜良棟報稱, 本日五更時分, 達虜大舉, 約萬餘衆, 由大福堡犯邊內搶.”
- 104)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據標下領兵原任參將俞尙德塘報, 據統領馬兵守備左聰報稱, 本年十月初一日卯時, 據錦州遊擊馬九臯差夜不收耿三變, 杏山備禦宋國賓差夜不收陳朝卿稟報, 達賊一萬餘騎, 從大福堡進入境內, 搶掠人畜.”
- 105)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蒙本院面諭卑職, 督同守備 左聰·姜良棟, 坐營孟一元, 千總任自德, 把總郭朝亨·張弘德·楊艾, 總管土喇氣別列蓋, 百總劉天其等五員, 分布奇正候敵.”
- 106)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又據守大福堡張得榮差夜役鄭尙義稟報, 達賊一千餘騎, 從本堡塔兒山空進入, 往中左所地方深搶.”
- 107)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時遇中左所遊擊李澤對敵後, 卽收兵過壕去訖.”
- 108)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本時, 又據大鎮堡夜役陸光祖稟, 有達賊四萬餘騎, 進來錦州東南小凌河, 松·杏山一帶深搶.”

萬世德은 부대를 정렬하고 성 위에서 복원군을 정탐하였다.¹¹⁰⁾ 寅時에 萬世德은 복원군이 東山에 주둔하여 동문을 돌파하려 한다고 판단하였다.¹¹¹⁾ 복원군이 壕邊에 이르자 萬世德은 직접 갑옷을 입고 공격을 지시하였다.¹¹²⁾ 萬世德은 다른 군대와 합세하고 일자진을 펼쳤다.¹¹³⁾ 날이 밝자 복원군은 杏山 사면을 포위하였다.¹¹⁴⁾ 萬世德은 병력을 징발하여 사면에서 대응하였고, 자신은 직접 진 앞에서 진두지휘하였으며, 南兵守備 姜良棟은 여러 지휘관과 함께 적의 공격을 막았다.¹¹⁵⁾ 萬世德은 조총수 180명을 성 위에 배치하고 대응사격을 지시하였다.¹¹⁶⁾ 또한 萬世德은 滅虜大砲를 성문과 성곽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¹¹⁷⁾ 辰時(아침 7시-아침 9시), 복원군은 동문을 공격하여 돌파하려 하였지만 滅虜大砲를 이용한 명군의 대응은 이들의 공격을 막았으며, 공격에 실패한 일부 복원군은 산 뒤로 도주

- 109) 徐希震, 『東征記』, “時已勝算萬全, 星馳出關, 至杏山, 遇遼虜猖獗, 截其要道. 公謂, 師武出征, 不先示勇于此, 何克平倭. 卽親擐甲, 臨陣斬馘數多, 虜却敗北, 我獲大勝. 公至王京, 則戊戌十一月二十六日也.” 여기서 徐希震은 무술년(1598) 11월 26일에 王京에 들어갔다고 언급하였지만,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선조 31년(1598) 11월 25일 卯時에 萬世德이 慕華館에서 선조의 영접을 받았고 이후에 선조가 萬世德에게 다례를 행하였으며, 11월 26일 午時에 萬世德이 답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기록을 종합하면, 11월 26일에 萬世德은 모화관에서 한양성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徐希震에 관한 연구는 楊海英, 「『東征記』 저자 徐希震 小考」, 『동국사학』 83, 2025, pp.373-401을 참조할 수 있다.
- 110)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各緣由到臣, 除已卽行揭帖內閣部科訖, 復該臣親驗虜首盡皆強壯, 馬匹機械俱如前數. 其戰陣始末, 初則臣在陣而部署, 既則臣登城而歷觀.”
- 111)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寅時, 由城門東西行走. 又以大虜屯筍東山, 意在奪門, 擄掠關廂.”
- 112)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及虜馳至壕邊, 臣擐甲注矢, 與官軍雜射.”
- 113)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大舉功疏略7’, “當蒙本院, 將親丁千總孟一元·任自德·沈龍, 帶領親丁, 與遊擊李澤, 及本職, 同中軍千把總周勅·梁禹門, 合營一處, 列爲一字陣, 當先衝砍.”
- 114)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又據統領南兵守備姜良棟報稱, 本日五更時分, 達虜大舉, 約萬餘衆, 由大福堡犯邊內搶. 天明已至, 杏山四面圍遶.”
- 115)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隨蒙本院調發馬步官兵, 四面應敵, 又蒙本院親至陣前, 指授方略, 職督率千總沈龍, 哨官王大勝·吳承佑·黃德化等, 以備截殺.”
- 116)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又蒙分布鳥銃手一百八十名在城上, 城外四面對打.”
- 117)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虜塘報6’, “又分布大炮. 委官謝棟等, 安設滅虜大炮於各城門城角.”

하였다.¹¹⁸⁾ 일부 복원군은 滅虜大砲를 훔쳐가기도 했다.¹¹⁹⁾

午時(아침 11시-오후 1시), 복원군은 재차 성문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명군의 조총과 대포 공격에 복원 진영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일부는 명군에 생포되었다.¹²⁰⁾ 같은 시각, 복원군은 산 뒤에서 잠복해 있다가 부대를 둘로 나누었다.¹²¹⁾ 錦州遊擊 馬九皋와 中左所遊擊 李澤이 영을 합치고 대적하였으며 명군은 산 뒤에서 나온 복원군을 포위하였다.¹²²⁾ 또한 성 남쪽 10리 떨어진 곳 어느 한 산에 매복하였다가 撒馬直이 이끄는 복원군을 공격하였다.¹²³⁾ 이들은 진영으로 들어가 수급 3과, 말 11필, 투구 및 활 화살 등을 확보하였다.¹²⁴⁾ 隨征冠帶官 梁汝貴는 복원군의 수장 准害倘不浪의 수급을 획득하기도 하였다.¹²⁵⁾ 未時(오후 1시-3시)부터 申時(오후 3시-5시)까지 수많은 복원군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상자는 모두 끌려갔다.¹²⁶⁾ 이로써 萬世德의 군대는 복원군으로부터 대승을 거두었고, 명 조정은 그의 승전보를 전달받았다.

-
- 118)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塘報6’, “本日辰時, 各虜披戴盔甲, 衝奪東門, 被大炮打傷, 數虜即時遁走山後.”;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大舉功疏略7’, “然虜自東來者, 遂悉衆衝突, 臣以隨征滅虜大砲橫擊之, 應聲落馬者數騎, 虜即遁山後.”
- 119)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大舉功疏略7’, “然遼後從來不用火器, 虜創見此技, 意必生兵. 此虜因不敢散搶, 時時出沒, 東山與關門相向, 至午後, 各虜業已搶回, 徑自取路而北, 而結營相持之, 虜欲循舊路.”
- 120)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塘報6’, “至午時, 大虜復行衝戰, 偶被守圍馬兵奔回, 幾爲衝亂. 幸各兵奮勇, 大炮・鳥銃齊發打死數多, 俱被虜拖去.”
- 121)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塘報6’, “至午時, 各虜從山後潛伏, 分爲二股.”
- 122)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塘報6’, “時, 錦州遊擊馬九皋・中左所遊擊李澤, 合營分投對敵, 我兵逃出虜.”
- 123)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塘報6’, “南去城十里, 候虜撒馬直, 從山上衝下, 衝爲兩段, 奮勇撲砍.”
- 124)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塘報6’, “就陣斬獲首級三顆, 奪馬十一疋, 盔甲・弓箭・夷器等件俱全.”
- 125)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塘報6’, “隨征冠帶官梁汝貴, 斬獲酋首一名准害倘不浪, 身穿大紅, 過肩莽甲, 見在可據.”
- 126) 姜良棟, 『鎮吳錄』 권3 「東征錄」, ‘萬曆二十六年十月經理撫院遼陽大舉功疏略7’, “自未至申, 砍死打傷達賊數多, 不及割取首級, 俱被拖拉去訖.”

2. 전투에 대한 평가

萬世德의 상주문을 통하여 그가 이끄는 명군은 부안이 이끄는 복원군에 대승을 거두었다고 보고되었다. 萬世德에게 있어 ‘杏山大捷’이라고 칭할 만한 이 전투는 후대의 기록에도 그대로 전해 오고 있다. 光緒『山西通志』에는 다음과 같이 ‘杏山大捷’을 평가하고 있다.

마침내 萬世德은 邊才로 인하여 巡撫都察院右僉都御史專理海防軍務로 승진하였다. 朝鮮經理로 임명된 후, 처음 조선에 이르렀을 때 杏山에서 전투를 벌였고 (적을) 격파하였다.¹²⁷⁾

이는 萬世德이 天津巡撫 임명 이후 다시 朝鮮經理로 임명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萬世德이 朝鮮經理로 임명되고 부임하여 처음 전투를 벌인 곳을 杏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杏山이 조선의 영역인 것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지만, 杏山에서 승전하였다는 것은 萬世德의 주장과 같다. 萬世德이 山西 太原府 偏關縣 출신인 만큼 『山西通志』에는 萬世德에게 유리한 기록이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萬世德의 杏山 전투가 승전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조선측이 포착하였고 그것이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되었다. 구체적으로 宣祖32년(萬曆27년, 1599), 宣祖는 북경 사행을 다녀온 領議政 李元翼에게 ‘關外獐子’의 소식을 물었을 때 杏山 전투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이 자리에서 李元翼은 자신이 山海關에 도착하였을 때 ‘獐子’가 萬世德을 杏山에서 포위하였고, 萬世德은 간신히 포위를 뚫고 다른 길을 통하여 동쪽으로 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虜’는 왜와 달리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여 사람과 가축 및 곡식만을 약탈하고 갔다고 전하였다.¹²⁸⁾

127) 曾國荃·張煦 修, 王軒·楊篤 纂, 光緒『山西通志』卷130「鄉賢錄15」, “世德遂以邊才進職巡撫都察院右僉都御史專理海防軍務. 已復經理朝鮮, 初至, 戰於杏山, 破之.”

128) 『朝鮮宣祖實錄』 권108, 선조32년(萬曆27년, 1599) 1월 10일 辛卯條, “上曰, 關外獐子, 聲息如何. 對曰, 臣行到山海關, 聞獐子再犯, 萬經理被圍於杏山, 僅脫由他路東來. 然虜異於倭, 不能陷城, 只掠在野人畜·禾穀以去.”

李元翼의 보고와 萬世德의 보고를 비교하면, 이때의 전투에서 부안의 북원군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로 드러난다. 그러나 李元翼의 보고는 萬世德이 패전하였지만 북원군 역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는 반면, 萬世德의 보고는 자신이 직접 지휘한 명군이 승리를 거두고 성을 지켜내었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술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살펴본 鎭武堡 전투의 승패에 대하여 李化龍과 熊廷弼이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대에 편찬된 『初學集詩注』에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萬世德은 萬曆26년 6월에 임명되고 11월에 遼東 杏山에 주둔하면서 전황을 관망하고 전진하지 않았다고 한다.¹²⁹⁾ 이 기사는 杏山 전투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이 杏山에 주둔했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萬世德이 전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만 萬世德이 11월에 杏山에서 관망하고 전진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9-10월의 杏山 전투가 끝나고 군세를 정비하느라 11월에도 杏山에 주둔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투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萬曆26년 9월에서 10월 사이, 萬世德은 조선으로 부임하던 도중 杏山에서 부안의 북원군과 조우하여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안의 군대는 이전처럼 명측의 성을 함락시키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萬世德은 이들의 전투에서 승전을 거둬 명 조정에 보고하였다. 萬曆26년 杏山 전투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부안의 명 변경 침공의 일환으로 발생한 전투였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萬曆26년 杏山 전투의 발생 맥락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萬曆26년

129) (清) 錢曾 箋注, 『初學集詩注』卷2, 「還朝詩集下」, “以天津巡撫萬世德代鎬, 經理遼左. 世德, 號萬偏頭. 以六月, 受簡, 十一月, 駐遼之杏山, 觀望不進.”

이전의 부안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안의 명 변경 침공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측 기록을 살펴보면, 부안의 군사 활동에는 패전에 대한 보복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글 처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몽골의 내부 분열과 몽골과 만주 사이에 발생한 역학적 변동이 있었던 상황에서, 부안의 군사 원정은 몽골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萬曆26년 杏山 전투는 북원의 수장 부안의 군대가 錦州城 일대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였다. 당시 조선으로 부임하던 萬世德은 杏山驛에 머물렀을 때에 북원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로 인하여 그의 조선 부임 여정은 지체되었다. 전투는 萬曆26년 이전부터 발생해 온 부안의 遼東 침공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 부안은 카안 즉위 이전부터 투먼의 아들로서 몽골군을 규합하여 명의 변경을 공격하였다. 명측 기록에서는 부안이 이끌었던 병력 10만이라고 으레 추정하였지만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10만 병력이라는 수치는 부안이 통솔한 군대 그 자체를 상징하였다.

부안의 군대는 주로 廣寧, 錦州, 義州 일대를 공격하였다. 萬曆26년 杏山 전투 역시 북원군의 錦州 공격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萬曆26년 杏山 전투는 부안이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도한 錦州 공격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며, 큰 맥락에서 보면 萬曆26년 전투는 錦州城 공략전으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안 군대가 명의 변방을 침공한 원인에 대하여, 명측 기록에서는 군사 원정의 실패에 대한 만회와 함께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역시 명측의 추정이나 탐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안 이후 립단 카안 시대에 발생하였던 몽골의 장성 이남 침공은 명과의 교역을 통하여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부안 역시 挾貢의 실패로 인한 침공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萬曆26년 杏山 전투 역시 교역 문제와 관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萬曆22년 이후의 침공은 단순히 재물이나 인신의 약탈에 그치지 않고 右屯衛城을 함락하여 더 많은 재화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측이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萬曆26년 전투의 발생도 錦州城 함락을 통한

물자 조달 시도라는 복원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원군의 침공에 대한 복원측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萬世德 군대가 杏山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전투 관련 기록은 萬世德의 상주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이 전투는 최종적으로 명군의 승전이라고 평가해야 하겠으나, 동시기 조선이 수집한 풍문이나 후대의 기록에서 보이는 전투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그의 전투를 둘러싼 평가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자료

『朝鮮宣祖實錄』

『明神宗顯皇帝實錄』

『明史』

格日樂 譯注, 2007, 『黃史』, 呼和浩特: 內蒙古教育出版社,

金毓黻, 『錦州府志』

曾國荃·張煦 修, 王軒·楊篤 纂, 光緒『山西通志』

姜良棟, 『鎮吳錄』

顧養謙, 『撫遼奏議』

瞿九思, 『萬曆武功錄』

徐希震, 『東征記』

熊廷弼, 『按遼疏稿』

李化龍, 『遼東奏議存』

錢曾, 『初學集詩注』

趙南星, 『趙忠毅集』

陳子龍, 『皇明經世文編』

2. 연구자료

남민구, 2022, 「정유재란기 南兵守備 姜良棟의 교섭 활동: 『鎮吳錄』을 중심으로」, 『學林』 50

노기식, 1999, 「後金時期 만주와 몽고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노기식, 1999, 「後金の 遼東進出 前後 만주와 몽골의 關係逆轉」, 『중국학논총』 12

노기식, 2000, 「홍타이지의 反릭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중국학논총』 13

노기식, 2001,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중국학논총』 14

楊海英, 2025, 「『東征記』 저자 徐希震 小考」, 『동국사학』 83

이선애, 2018,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관계」, 『명청사연구』 49

戴鴻義, 1992, 「論林丹汗의 敗亡」, 『社會科學輯刊』 82

楊強, 2010, 「論林丹汗의 敗亡」, 『大連民族學院學報』 12-2

曹彥生, 1993, 「林丹汗聯明抗金的經濟原因」, 『內蒙古社會科學』

張永江, 1992, 「十七世紀初東蒙古의 政治局勢與林丹汗」, 『煙台師範學院學報』

希都日古, 1999, 「林丹汗與廣寧之戰」,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3

- 希都日古, 1999, 「試論林丹汗西征的後果及其敗亡」, 『內蒙古社會科學』
- 聶曉靈, 2010, 「蒙古林丹汗與滿蒙初期政治關係」, 『滿族研究』 10
- 聶曉靈, 2012, 「林丹汗東征科爾沁部與後金的政治關係」, 『內蒙古社會科學』 33-2
- 刁書仁, 2015, 「16·17世紀之際東亞全遼地區的滿蒙關係」, 『中國邊疆史地研究』 25-4
- 萩原淳平, 1979, 『明代蒙古史研究』, 同朋舍
- 和田清, 1959, 『東亞史研究』(蒙古編), 東洋文庫

투고일 2025년 9월 14일 심사완료일 202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10월 27일

■ Abstract ■

The Battle of Xingshan (杏山之战) of 1598 Reconsidered : Wan Shide's Defense of Jinzhou against the Northern Yuan

Nam, Mingu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clarifie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Battle of Xingshan, which has previously been known through only fragmentary records. Drawing on Chinese and Korean historical archives, it reconstructs what occurred during the event and clarifies its location and participants. Historically, the event took place in the 26th year of the Wanli reign (1598), when Wan Shide (萬世德), coordinator of Tianjin (天津巡撫), was appointed military commissioner of Joseon. While en route to assume office, he learned that the “Dazi” (達子, referring to northern tribes) were attacking Jinzhou Fortress. From Xingshan Station, Wan personally directed the defense and valiantly repelled the assault.

Analysis of related sources reveals that the event was less a large-scale battle than a localized engagement at Jinzhou, led by Buyan Secen Qa'an (伯彥罕), ruler of the Northern Yuan (北元) and son of Tumen Jasagtu Qa'an. Following his succession in 1592, Buyan launched not one, but a series of incursions into Liaodong with forces numbering up to 100,000 soldiers, with his eyes on capturing fortified cities for economic and strategic advantage. By identifying Baianhan as Buyan and locating the engagement at Jinzhou rather than Xingshan, this study corrects the historical record and redefines the event's place within the late-Ming frontier warfare.

Key words: Battle of Xingshan, Wan Shide, Buyan, East Mongols, Jinzhou, Northern Yuan